<h1>나 혼자만 레벨업-7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we7099ad27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화</p>  
<p>앞, 뒤, 좌, 우.</p>  
<p>사방의 시야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네 사람이 필요했다.</p>  
<p>자신과 주희와 송 씨와 김 씨.</p>  
<p>남아 있는 네 사람 중 한 명만 빠져도 시야에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김 씨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물었다.</p>  
<p>"성 씨, 어떻게 된 거야? 설명을 좀 해 봐."</p>  
<p>"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돼요! 푸른 불꽃이 다 꺼질 때까지."</p>  
<p>진우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.</p>  
<p>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쫑긋 세웠다.</p>  
<p>빠르게 모든 설명을 마친 진우가 끝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.</p>  
<p>"모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."</p>  
<p>이 방의 규율들은 항상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었다.</p>  
<p>마지막 규율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.</p>  
<p>서로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아 돌아갈 수 있다고, 진우는 확신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달랐다.</p>  
<p>김 씨가 머뭇거리며 물었다.</p>  
<p>"저기, 성 씨... 성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...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고 문이 완전히 닫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"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.</p>  
<p>여러 가지 궁리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지만 결과가 나와 보기 전까진 백퍼센트 장담할 수 없었다.</p>  
<p>그러나 김 씨에게는 정답이 필요했다.</p>  
<p>불확실한 전원의 생존보다, 확실한 본인의 생존이 더 절실했다.</p>  
<p>"미안한데... 나도 더는 못하겠어."</p>  
<p>"아저씨!"</p>  
<p>"미안해."</p>  
<p>김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제단을 내려갔다.</p>  
<p>그리고 진우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문 쪽으로 달렸다.</p>  
<p>문밖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던 김 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뿌득.</p>  
<p>진우는 이를 갈았다.</p>  
<p>"제길!"</p>  
<p>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친절과 감사가 아니었다.</p>  
<p>배신감에 치가 떨려 왔다.</p>  
<p>예상했던 대로 김 씨가 나가자마자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.</p>  
<p>사방을 3명이서 감시하긴 무리였다.</p>  
<p>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석상들이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석상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었다.</p>  
<p>주위를 둘러보던 송 씨가 진우와 주희에게 말했다.</p>  
<p>"자네들은 가게."</p>  
<p>체념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.</p>  
<p>진우가 돌아보았다.</p>  
<p>"아저씨...?"</p>  
<p>"김 씨 말대로 자네들을 이리 데려온 게 나지 않나? 누구 하나가 꼭 남아야 한다면 내가 남는 게 맞지."</p>  
<p>"그래도!"</p>  
<p>"조금이라도 살날이 더 많은 자네들이 나가야지."</p>  
<p>송 씨는 웃었다.</p>  
<p>자신을 남겨 두고 나가야 하는 두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려는 배려였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마음이 불편했지만 여기서 누가 남을 것인지 설전을 벌일 시간은 없었다.</p>  
<p>송 씨는 주희에게 진우의 부축을 맡기려고 했다.</p>  
<p>"주희 양, 성 씨를 좀 도와주겠나?"</p>  
<p>"네, 네."</p>  
<p>그러나 진우를 도우려던 주희가 갑자기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주희는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"다리가... 다리가 안 움직여요."</p>  
<p>진우와 송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주희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.</p>  
<p>입술은 새파랗게 변했고, 온몸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.</p>  
<p>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마력을 남발하는 바람에 생긴 후유증이었다.</p>  
<p>'내 다리를 치료하려다...'</p>  
<p>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말문이 막혀 왔다.</p>  
<p>하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끼이이이이이이익-</p>  
<p>석상들은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제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송 씨의 부축을 뿌리치고 털썩 주저앉았다.</p>  
<p>송 씨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자네...?"</p>  
<p>진우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.</p>  
<p>"아저씨는 주희 씨를 데리고 나가 주세요."</p>  
<p>"내가 남는다고 하지 않았나."</p>  
<p>"그럼 누가 주희 씨를 부축해요?"</p>  
<p>혼자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몸으로 주희를 시간 내에 문까지 데려가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.</p>  
<p>'물론...'</p>  
<p>주희를 버리고 간다는 선택지도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주희는 그동안 몇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고, 지금 그녀가 이렇게 된 것도 자신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였다.</p>  
<p>그런 사람을 버리고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긴 싫었다.</p>  
<p>"시간 없어요, 가세요."</p>  
<p>"..."</p>  
<p>송 씨는 굳은 얼굴로 주희를 일으켜 세웠다.</p>  
<p>그러나 주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안 돼요... 진우 씨는 나갈 수 있잖아요. 차라리 내가..."</p>  
<p>"내가 저녁 사기로 약속했었죠?"</p>  
<p>진우는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E급 마정석을 꺼내 주희의 손에 쥐여 주었다.</p>  
<p>"이걸로 먼저 먹고 있어요. 여기서 나가면 잔돈부터 받으러 갈 거니까."</p>  
<p>진우가 미소 짓자 주희가 화를 냈다.</p>  
<p>"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요, 진우 씨는!"</p>  
<p>진우는 송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송 씨가 주희의 목 뒤를 수도로 가볍게 내려쳤다.</p>  
<p>"아."</p>  
<p>주희는 의식을 잃었다.</p>  
<p>기절한 주희를 송 씨가 한쪽 어깨에 둘러업었다.</p>  
<p>"...미안하네."</p>  
<p>"제가 선택한 건데요, 뭘."</p>  
<p>송 씨가 진우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송 씨는 빠르게 제단을 벗어났다.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석상들은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꿇어앉은 채로 심호흡했다.</p>  
<p>"후우, 후우-."</p>  
<p>옆에 김 씨가 버리고 간 검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진우는 손을 뻗어 검을 주워 들었다.</p>  
<p>'이렇게 된 이상 한 놈이라도 데려간다.'</p>  
<p>뒤를 돌아보니 송 씨는 주희와 함께 무사히 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. 다행이었다.</p>  
<p>'죽는 게 나 하나여서...'</p>  
<p>희생같이 거창한 의미는 아니었다.</p>  
<p>어느 정도 계산이 깔려 있었다.</p>  
<p>이대로 돌아가 봤자 평생 다리 하나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.</p>  
<p>당연히 헌터 일은 불가능하고, 평범한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.</p>  
<p>고졸에다 배운 기술도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리라.</p>  
<p>'어머니 병원비에 동생 학비까지...'</p>  
<p>그럴 바엔 차라리 가족들에게 보상금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하자는 생각이었다.</p>  
<p>'레이드 중에 사망하면 가족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3억이던가, 4억이던가?'</p>  
<p>E급 헌터의 보잘것없는 목숨값치곤 과분한 셈이었다.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덜컹.</p>  
<p>마침내 놈들이 왔다.</p>  
<p>가장 먼저 제단에 도착한 석상이 제단 안으로 첫발을 내디뎠다. 진우는 놈을 주시하며 검을 곧게 세웠다.</p>  
<p>"와라."</p>  
<p>하지만 공격은 뒤에서 들어왔다.</p>  
<p>푹!</p>  
<p>등을 찌르고 들어온 긴 창이 진우의 가슴을 뚫고 앞으로 튀어나왔다.</p>  
<p>"컥!"</p>  
<p>진우가 한 움큼 피를 토했다.</p>  
<p>격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.</p>  
<p>"조금만 더 위쪽이었다면 심장에 구멍이 뚫렸을 거라고요!"</p>  
<p>불과 몇 시간 전 주희에게 들었던 잔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"으, 으아아아악!"</p>  
<p>석상은 창을 세웠다.</p>  
<p>진우는 창에 관통된 채로 공중으로 떠올랐다.</p>  
<p>고통에 발버둥치는 것도 잠시, 곧 석상이 진우를 바닥에 메쳤다.</p>  
<p>쾅!</p>  
<p>"컥!"</p>  
<p>전신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통증에 온몸이 오그라들었다.</p>  
<p>"으... 으으..."</p>  
<p>바들바들 떠는 진우 주위로 석상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.</p>  
<p>석상들은 진우를 빙 둘러쌌다.</p>  
<p>진우는 놈들을 올려다보며 몸서리쳤다.</p>  
<p>'이렇게... 이렇게 죽기는 싫다.'</p>  
<p>막상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 눈물이 핑 돌았다.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.</p>  
<p>마지막까지 걱정해 주던 주희의 얼굴도 떠올랐다.</p>  
<p>'죽고 싶지 않아...'</p>  
<p>스물넷의 짧은 생애를 이렇게 마감하기는 싫었다.</p>  
<p>저벅.</p>  
<p>검을 든 석상이 감정 없는 얼굴로 한걸음 다가왔다.</p>  
<p>놈은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놈을 시야에서 외면하지 않았다.</p>  
<p>마침내, 놈의 검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쉬이이익-!</p>  
<p>'한 번만,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!'</p>  
<p>진우가 눈을 부릅떴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츠츠츠-!</p>  
<p>마치 동영상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, 무섭게 떨어져 내리던 검이 갑자기 멈추었다.</p>  
<p>아니, 멈춘 게 아니었다.</p>  
<p>그렇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느려진 상태였다.</p>  
<p>!분에 1미리?</p>  
<p>느리지만 분명히 검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.</p>  
<p>'뭐, 뭐지?'</p>  
<p>진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.</p>  
<p>그때 처음 듣는 여성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.</p>  
<p>['시크릿 퀘스트 : 무력한 자의 용기'의 완료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.]</p>  
<p>시크릿 퀘스트?</p>  
<p>완료 조건을 충족?</p>  
<p>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.</p>  
<p>'아니, 그보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?'</p>  
<p>하지만 목소리는 진우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어졌다.</p>  
<p>[플레이어가 되실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.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획득했다고?</p>  
<p>수락하라고?</p>  
<p>'뭘 주긴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...'</p>  
<p>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 온 터라 누가 공짜로 준다는 걸 마다해 본 적은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것도 다 살아 있을 때 이야기지, 죽고 나면 공짜든 할부든 무슨 소용인가?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가 망설이고 있자 머릿속의 목소리가 재촉하듯 다시 물었다.</p>  
<p>[귀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수락을 거부하실 경우 0.02초 후 귀하의 심장이 정지합니다.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환청인지 뭔지는 몰라도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적으로 공감했다.</p>  
<p>머리를 향해 다가오는 검 말고도 수많은 무기들이 자신을 노리고 날아들고 있었다.</p>  
<p>이쯤 되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됐다.</p>  
<p>'...줄 거면 주던가.'</p>  
<p>입 밖으로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리기만 했을 뿐이었다.</p>  
<p>그런데도 머릿속의 목소리는 즉각 응답했다.</p>  
<p>[플레이어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]</p>  
<p>번쩍-</p>  
<p>눈부신 빛이 전신을 휘감음과 동시에 진우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.</p>  
<p>6. 페널티</p>  
<p>눈을 떴다.</p>  
<p>새하얀 천장과 코를 자극하는 소독약 냄새.</p>  
<p>등에 닿는 딱딱한 침대의 느낌.</p>  
<p>진우는 어디서 눈을 떴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.</p>  
<p>'병원?'</p>  
<p>B급 치료계 헌터인 주희를 만나고부터는 부쩍 들어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으나, 아직도 진우에게 병원이란 퇴근하면서 들리는 편의점처럼 친근한 장소였다.</p>  
<p>오죽하면 헌터 지정 병원엔 성진우 지정석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겠는가?</p>  
<p>진우는 상체를 일으켰다.</p>  
<p>그리고 가슴 부근에 손을 대고 가만히 고동을 느껴 보았다.</p>  
<p>심장은 문제없이 뛰고 있었다.</p>  
<p>'내가 살아 있다고?'</p>  
<p>그것뿐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평상시와 달리 몸이 아주 가벼웠다.</p>  
<p>보통 병원에서 눈을 뜨면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누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.</p>  
<p>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.</p>  
<p>그냥 집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었다.</p>  
<p>'뭐지...?'</p>  
<p>의식을 잃기 전의 상황을 떠올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바로 눈앞에서 검이 떨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검은 운 좋게 빗나갔다고 쳐도 사방이 무시무시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.</p>  
<p>A급, 아니 S급 헌터들로 꾸려진 공격대가 들어왔어도 상대가 될까 말까한 놈들이었다.</p>  
<p>'거기서 살아 나왔다?'</p>  
<p>꿈이라도 꾼 걸까.</p>  
<p>다행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덮고 있는 이불을 젖혀 보았다.</p>  
<p>진짜였다면 다리가 없을 테고, 꿈이었다면 다리가.</p>  
<p>"정신이 드셨습니까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